

전자저널 컨소시엄의 이해관계자 요구 분석 연구*

A Study on Electronic Journal Consortium Stakeholder Needs Analysis

전혜영** · 박수희***

Hae-Yeong Jeon · Soo-Hee Park

차 례

1. 서론	5. 분석결과(3) : KESLI
2. 연구방법	6. 결 론
3. 분석결과(1) : 전자저널구독현황	• 참고문헌
4. 분석결과(2) : 컨소시엄	

초 록

학술정보의 핵심인 학술지에 대한 정보 요구가 점차 전자저널로 변화함에 따라 도서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전자저널을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저널 컨소시엄은 참여 도서관이 활발한 역할을 하기보다 운영기관과 콘텐츠 제공자가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는 KESLI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참여 도서관, 콘텐츠 제공자, 그리고 컨소시엄 운영자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을 통해 그 쟁점사항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KESLI 이해관계자 집단의 기대와 요구를 표적집단면담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KESLI 컨소시엄의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키 워 드

전자저널, 컨소시엄, 이해관계자, 요구분석, 질적연구, 표적집단면담

* 본 연구는 2007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위탁연구과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동아대학교 의학도서관 사서
(Medical Librarian, Dong-A University Medical Library, hyjeon@dau.ac.kr)

*** 송실대학교 참고 사서
(Reference Librarian, Soongsil University Library, pshee@ssu.ac.kr)

• 논문접수일자 : 2008년 2월 18일

• 게재확정일자 : 2008년 3월 20일

ABSTRACT

Increasing researcher's demand on electronic journals as the most important research resource, libraries have made effort to develop electronic journals efficiently with cooperating through consortium. However, Korean electronic journal consortium are led by representatives and e-journal contents providers rather than library members. KESLI has the largest members in Korean libraries consortium and is needed to identify the key issues of KESLI consortia by these stakeholders. This study suggests to develop a future business model for KESLI analyzing KESLI stakeholder's expectation and needs by focused group interview.

KEYWORDS

Electronic journal, Consortium, Stakeholder, Needs analysis, Qualitative research, Focus group Interviews, FGI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연구자들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전통적인 인쇄형 저널보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 저널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도서관의 전자저널은 컨소시엄 구독을 통해 자원의 활용성을 한층 더 높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1997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중심이 된 '해외 데이터베이스 컨소시엄(KUCED)'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해외학술 전자정보 공동구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전자저널 국가 컨소시엄(KESLI)', 그리고 한

국의학도서관협의회(KMLA)의 '의학DB 컨소시엄'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컨소시엄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고, 국가 컨소시엄으로 추진되는 KESLI는 우리나라 학술정보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KESLI의 목적은 첫째 다양한 전자저널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둘째 전자정보의 구입과 관리 등의 절차를 단순화시켜 출판사와 도서관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KESLI의 중요성이나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 컨소시엄 서비스에 대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기대와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 전자저널의 대표적 컨소시엄인 KESLI에 대한 쟁점사항을 이해관

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전자저널 현황 그리고 컨소시엄과 KESLI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KESLI 컨소시엄의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1.2 연구의 범위

국가 전자저널 컨소시엄 KESLI를 위한 미래 운영 방안을 개발하고자 수행된 이 연구는 KESLI 컨소시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적집단면담(Focused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수행하였다.

전자저널 컨소시엄의 이해관계자 집단은 컨소시엄 운영자, 콘텐츠 제공자 그리고 참여 도서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여 도서관의 경우 전자저널 실무자와 최종이용자 모두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으나 이 연구의 목적이 컨소시엄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있으므로 참여 도서관의 범위를 전자저널 실무자로 제한하였다. 컨소시엄 서비스의 궁극적인 수혜자인 최종이용자 집단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3 선행연구

전자저널의 컨소시엄은 도서관의 개별 구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전자저널을 구독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해외 전자정보의 국가적 컨소시

엄 정책 개발 연구(한혜영, 조현양 2003)에서 우리나라의 컨소시엄 모형은 도서관의 예산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공동구매 활성화 및 공동활용 지원 정책이 제안되었고, 효과적인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을 수립 방안으로서 국내 도서관과 대행사의 설문 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 모델(황옥경 2004)이 연구되었다. 신은자(2006)는 대학도서관 수서에 있어서 학술지의 적정가격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서들이 빅딜 판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황을 주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들을 제안하였다. 저자는 이어 2007년에도 학술지 빅딜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도서관 사서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외의 경우 컨소시엄의 운영 기관에서 컨소시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수요조사한 결과를 평가 보고서(CRKN 2004 ; 日本醫學圖書館協會雜誌委員會 2005)로 발간하였다. 컨소시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컨소시엄 이해관계자 집단의 기대와 수요에 대한 심층 연구보다 설문조사에 기반한 현황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2. 연구 방법

KESLI 컨소시엄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심층적

으로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집단을 동질성과 유사성에 근거하여 6개 집단으로 군집화하여 표적집단면담(Focused Group Interview : 이하 FGI)을 실시하여 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FGI는 조사 집단에서 선발된 6-12명 정도의 소규모 집단으로 진행되는 심층 면담 방법으로서, 개인의 의견은 물론 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견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abiee 2004 ; Satoh, et al, 2005). 이에 근거하여 KESLI 컨소시엄의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집단의 수요와 기대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참여자들간의 의견과 입장을 파악하고자 FGI를 선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FGI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 소규모 그룹의 집중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설문조사 등에서 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보다 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수집한다.
- 설문조사에서 배제되기 쉬운 소수집단의 특징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면담질문을 설계하고 진행한다.

- 이해관계자 그룹의 특성에 따라 대표기관을 군집화하여 각 집단 간 차이점과 공통점을 종합 정리하여 전체 이해관계자의 주요 쟁점을 입체적으로 파악한다.

2.1 이해관계자 집단 범주화

표적집단 구성을 위해 일차적으로 KESLI 컨소시엄의 이해관계자 집단을 컨소시엄 운영기관, 콘텐츠 제공자, 그리고 참여 도서관으로 구분하고, 370개 기관에 달하는 참여 도서관은 유형에 따라 <표 1>과 같이 구분하였다.

다음 과정으로 어떤 기관의 담당자를 FGI에 초청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 참가비율, 관종, 지역, 규모, 주제 등의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이를 대표할 수 있는 6개의 FGI를 <표 2>와 같이 구성하고 아래의 기준에 따라 30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 ① 대학도서관은 지역(수도권, 비수도권), 관종(국립, 사립), 주제별(공학, 의학), 규모(대, 중, 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였

<표 1> 컨소시엄 이해관계자

2007년 8월 현재

컨소시엄 참여 도서관							기타 이해관계자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컨소시엄 운영기관 콘텐츠 제공자 (출판사, 대행사)
국립	사립	전문대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의학/병원	
40	113	28	16	58	67	48	
181			189				
총 370개 기관							

〈표 2〉 FGI 구성

그룹명	선정기준	선정기관
그룹1 대학-지역	•지역 : 경상지역 •관종 : 국립대/사립대/주제별	대학 도서관(3), 의과대학 도서관(1), 공학대학교 도서관(1)
그룹2 대학-대규모	•지역 : 수도권 •규모 : 저널예산 - 15억 이상 컨소시엄 - 20개 이상	대규모 대학도서관(5)
그룹3 대학-중소규모	•지역 : 수도권 •규모 : 저널예산 - 3억 미만 컨소시엄 - 10개 내외	중소규모 대학도서관(4) 전문대학 도서관(1)
그룹4 연구소	•국책연구소 •민간연구소	국립기관 도서관(1) 정부출연 연구소 자료실(3) 기업체 연구소 자료실(2)
그룹5 의학/병원	•관종 : 의학/병원도서관 •KESLI, KMLA 동시가입 기관	대학부설 병원도서관(2) 의료원 도서관(1)
그룹6 기타 이해관계자	•컨소시엄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100개 이상인 출판사 및 대행사	출판사(1) 대행사(1) 컨소시엄 담당자(4)

다, 규모의 기준은 연간 저널 예산과 KESLI 컨소시엄 참가 수에 근거하였다.

- ② 전문도서관은 특성이 유사한 기업의 도서관과 연구소도서관을 하나의 그룹으로 하고, 이를 다시 국책기관 및 민간기관으로 배분하였다.
- ③ 의학/병원도서관은 한국의학도서관협회(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 이하 KMLA)에서 주관하는 의학도서관 전자저널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KESLI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④ 기타 이해당사자 그룹은 KESLI, KERIS, KMLA 등 각 컨소시엄을 주관하는 운영

기관과 컨소시엄 참여 도서관이 100개 이상인 콘텐츠 제공자(출판사 또는 대행사)를 선정하였다.

2.2 참여자 선정

참여기관 성격에 따른 대표성이 아무리 타당하다 하여도, 그 기관의 대표자, 즉 전자저널 실무담당자가 전자저널 업무를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컨소시엄의 미래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공유할 의사가 없다면 FGI가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단 기관 성격에 따라 참여기관을 구분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FGI 참여자를 선

정하였다.

- ① 도서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서를 기준으로 삼았다. 전자저널 담당 사서가 도서관의 전반적인 정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② 저널 및 컨소시엄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해당분야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③ 저널 및 컨소시엄 운영에 있어 문제의식을 지닌 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이 세 번째 기준은 원활한 토론진행에 매우 필요한 것이어서 앞서의 두 가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문제의식을 지니지 않은 이는 참여자 선정에서 배제하였다.

요구조사를 위한 FGI 설계와 실행에 앞서, 연구진은 2007년 4월 개최된 <KESLI 포럼 Open Space Technology Workshop>에 참석하여 KESLI 컨소시엄의 주요 쟁점 사항을 파악함과 동시에 FGI에 초청할 주요 면담대상자(key informants)를 확인하였다.

KESLI 포럼에서 수집된 후보자 명단을 참조하고, 전자저널 담당 사서들로부터 폭 넓은 추천을 받아 그룹별로 2배수 이상의 FGI 참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정된 대상자의 연락처를 수

집하였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전화 통화로 본 연구의 취지 및 방법을 설명하고 참석 가능성을 타진하여, 이를 수락한 사람들에게는 일정과 간략한 진행 내용을 전자메일로 발송하고 긴급 연락이 가능한 연락 번호를 접수 받았다. 이러한 FGI 참여대상자 선정과정 중 발생한 어려움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있었다.

- ① 연구진이 논리적으로 선정한 위의 조건에 맞는 저널 담당 사서를 찾기가 수월치 않았다. 도서관 전반의 흐름을 이해하고, 전자저널의 유통과정을 파악하며 컨소시엄 업무를 담당 한 노후가 축적되어있고, 문제의식을 갖춘 담당 사서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선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검증된 담당 사서를 찾아내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 ② 섭외 대상자중 여성의 수가 극히 우세하여 성별 불균형이 예상됨에 따라 남성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섭외하고자 별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면서도 성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후보자가 풍부하지 않아서 참석자의 성별 불균형은 그대로 감수해야만 했다.
- ③ 참여기관의 전자저널 담당 사서들의 대부분은 FGI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취지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참석불가 의사를 표명하는 이들이 많아 참여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 ④ 연구소 그룹의 경우 민간연구소의 의견 개진이 상대적으로 적고, 참여기관이 대부분 국책연구소인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해당그룹에 민간연구소 1개관을 추가하여 섭외하였다.
- ⑤ 대부분이 전문대학 도서관이었던 소규모 대학도서관 그룹의 경우, 섭외대상자 대부분이 참석불가 의사를 밝히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 전자저널 활용이나 컨소시엄 참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으로 인하여 이 연구가 수집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을 원활하게 개진할만한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있지 않다는 의견 때문이었다. 따라서 소규모 대학도서관 그룹의 경우에는 별도의 FGI를 수행하지 않고,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를 추천을 받은 대표자 1인을 중규모 대학그룹에 포함시켜, 중소규모 대학그룹으로 변경하여 수행하였다.
- ⑥ 의학도서관의 경우에는, FGI 실행 1주일 전에 5개 기관의 섭외가 이미 완료되었으나 참석을 위한 내부결재가 승인되지 않아 2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대체되었고, 시행 며칠 전 또 다른 2개 기관에서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불참 의사를 제기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3개 기관만으로 FGI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전자저널을 비교적 많이 구독하고 있는 대표적 의학도서관들이 대부분 참여하지 못하는 차질을 빚었다.

FGI 참석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평균 근속연수는 16.5년, 컨소시엄 담당기간은 평균 5년이었으며, 연령대는 40대가 주축으로 나타나 해당 업무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3 면담가이드 개발

제한된 시간 동안에 여러 사람이 주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진행자의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참여 도서관(그룹 1-5)과 기타 이해관계자(그룹 6) 용도로 나누어 두 개의 면담가이드를 <표 3>과 같이 개발하였다. 각 FGI에는 시작 15분, FGI 90분, 마무리 15분으로 총 2시간으로 구성하였으나 워밍업, 휴식, 마무리 등을 포함하여 전체 진행시간을 3시간 정도로 예상하였다.

2.4 일정 및 진행

FGI는 7월 13일 첫 번째 그룹을 시작으로 9월 6일 마지막 그룹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행되었다. 비수도권 그룹인 FGI 1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에서 열렸으며, 길게는 3시간 반에서 가장 짧게는 2시간 반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FGI에서 논의된 내용을 녹음/녹취하기

〈표 3〉 FGI 면담가이드

시간	영역	세부영역	그룹1~5 진행내용	그룹6 진행내용
	인사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인사 및 참석자 소개 •참여자 설문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인사 및 참석자 소개
15분	현황 파악	사실형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기관의 전자저널 구독 현황 (구독방법, 컨소시엄 참여, 인쇄/전자 구독 비율, 이용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기관(회사) 소개 •소속기관의 컨소시엄 현황
60분	전자저널	구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소시엄 정책 •컨소시엄 운영의 문제점 •문제점의 원인, 해결전략 •컨소시엄에서 소속기관의 역할 •참여기관들이 요구 사항에 대한 파악 정도 •참여기관의 지적사항(주관 기관의 애매 모호한 역할, 출판사/대행사의 투명한 조건 제시)에 대한 의견. •전자저널 컨소시엄에 대한 전망
		컨소시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점, 현재 조건에 대한 의견, 컨소시엄별 비교, 개선점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 현황, 문제점, 활성화 방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 현황, 문제점, 비용대효과 의견, 보존 방안 	
30분	KESLI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체성, 운영 방안 	
		컨소시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새로운 컨소시엄 방안 제시 	
		전자저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과적 국가 전자저널 운영방안 	
		NDSL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용성, 문제점, 개선방안 	
15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전자저널 국가 라이선스 	
총 120분				

위하여 녹음장치인 MP3, 보이스펜, 그리고 카세트테이프 등을 준비하였다. 그 밖에 참여 기관 및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준비하였다.

2.5 녹취와 분석

연구진은 FGI의 분석을 위하여 녹음된 6개의 FGI 파일과 테이프를 모두 녹취하여, 초고를 점검하여 논의된 내용을 정확한 텍스트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차적으로 구체적인 쟁점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문단을 기본 단위로 개념을 추출하는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추출된 진술문은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방 코딩 방법으로 범주와 하위 범주 그리고 속성을 정의하고 메모를 병기하였다. 범주는 기본적으로 면담 질문의 영역을 반영하였으며, 하위 범주는 코딩된 속성을 근거로 범주를 구체화 하였다. 속성은 자연어와 코딩 기호로 기술하였으며, 진술문에 있는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속성에 정의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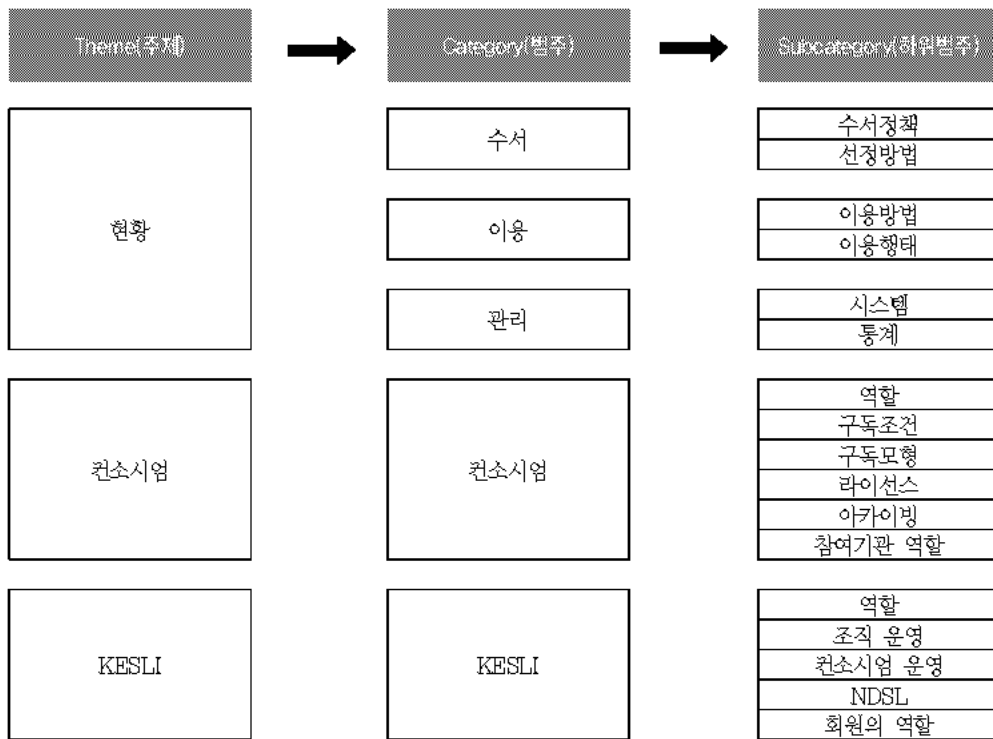
1차 코딩에서 정의한 속성이 진술문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지를 대조·확인하여 추가, 수정, 삭제의 단계를 거쳐 통제어로 재정의 하였다.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작성한 코딩표를 참조하여 속성에 통제어를 정의한 다음, 하위 범주와의 관계가 타당한 지를 검토하고 다시 하위 범주를 정의하였다. 코딩간의 상호 관련성을 검토하여 최종 5개 범주를 선택하고, 그 아래 17개의 하위 범주와 450개 속성을 분석하였다. 450개 속성은 중복 빈도를 산출하여 중요도와 공통점 파악에 참고하였다. <그림 1>은 이러한 코딩작업의 결과로부터 도출한 분석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분석틀을 기반으로 6개 FGI에서 전자저널 구독현황, 권소사업, 그리고 KESLI에 대한 제언으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인용문 서술 방식은 직접 인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일부에 한해 제한적으로 문어체로 수정 서술하였다.

3. 분석결과(1) : 전자저널 구독현황

3.1 종이 vs. 전자저널 구독비율

각 기관은 전자저널을 대부분 권소사업을 통해 구독하고 있었다. 대학은 개별 구독하는



<그림 1> 분석틀의 구조

전자저널이 일부에 불과했지만, 연구소에서는 특수 주제 분야 저널을 컨소시엄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개별 구독해야하므로 그 양이 많은 기관도 있었다. 의학도서관의 경우 의학 저널을 개별 구독하기보다 의학 저널 컨소시엄, KMLA를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었다. 현재 인쇄와 전자저널의 구독예산 비율은 대규모 대학의 경우 7:3에서 6:4, 중소규모 대학의 경우 5:5에서 4:6, 연구소나 병원 도서관은 4:6에서 1:9까지도 나타났다.

“e-only가 가능하다면 모두 e-only로 보고 ‘인쇄로 구독해야 되는 것은’ ‘인쇄로 구독하고’ ...작년에 쓴 걸 보면, 6:4정도로 컨소시엄비용하고 인쇄본비용을 지출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쇄:전자가 e-only로 보는 것까지 한다면 2:8 되겠네요. 인쇄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학/병원도서관)

그런데 전자저널의 경우 매년 구독비용이 증가하므로 이에 따라 전자저널 구입예산도 증가해야 마땅하지만 각 기관의 예산이 매우 적다.

“매년 요구분석을 해보면... 전체대학 중에 ...한 5%에서 10%정도 대학이 인상이 되고 그 나머지는 동결 내지는 마이너스로 간다고 봐야 돼요...”

(컨소시엄 주관기관)

이렇게 정해진 예산에서 저널을 구독하다보면, 매년 환율 변화에 따라 구독저널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더구나 전자저널

을 구독하더라도 인쇄본 구독을 필수로 지정하는 전자저널 패키지들이 있다. 이 경우, 전자저널 예산의 비용 대 효과를 저하시킴과 동시에 전자저널 구독 조정을 어렵게 하여 예산에 대한 전자저널 담당자들의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다.

3.2 수서

3.2.1 선정정책

각 기관에서는 장서개발정책을 성문화하여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구두로 혹은 암묵적인 수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구독했던 전자저널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층이 분포되어 있어서 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독을 유지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자저널을 구독하다보니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거의 없으며 구독중지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도서관의 전자저널 선정권은 거의 사라져가는 추세라고 하였다.

3.2.2 선정방법

1) 이용자 요구조사

이용자 요구조사는 대학의 교수, 연구소의 연구원, 병원의 의사의 요구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의 요구에 따라 차기 년도에 구독할 전자저널을 선정한다. 개별 면담이나 전화를 통하여 요구를 파악하기도 하지만, 대학의 경우 매년 전자저널 선정 시점 이전에 전체 교

수 또는 학과장에게 공문서를 발송하여 필요한 전자저널을 신청 또는 취소하도록 구독 조정을 요청한다. 예산 담당 사서나 상급자에게 선정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게 된다.

2) 이용통계

이용통계는 기 구독중인 전자저널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용 대 효과를 거두었는지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관은 기존의 전자저널에 대해서는 이용통계를 근거로 하여 저널을 선정한다. 이용통계를 어느 정도까지 수집하느냐에 따라 실제적 이용인지 아닌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용통계가 전자저널 구독의 객관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이다. 대학, 연구, 의학도서관 모두 구독 조정에서 최우선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이용통계이다. 통계를 근거로 하여 비용 대 효과가 낮은 전자저널은 취소하고 문헌복사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통계가 제각각이고 통계수치가 부정확하여 활용에 제한이 있는 실정이다.

3) SCI

각 기관은 연구실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SCI급 저널여부에 따라 전자저널을 선정한다. 수년전부터 국내에서는 SCI급 저널을 최고의 해외 전자저널로 간주하는 추세여서 각 기관에서는 SCI급 저널을 선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대학도서관에서 선정 기준으로 많

이 활용하고 있다.

4) 분담구독

캠퍼스가 나뉘어있는 대학의 경우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한 캠퍼스에서만 구독을 하고 IP를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전자저널 패키지의 경우에는 IP로 접근을 제한하기 때문에 프락시 등을 사용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들 대학의 경우 양측 캠퍼스 간 조정 및 협의에 따라 전자저널 구독결정을 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기관의 경우, 타 기관과 전자저널 분담 구독을 수행할 때 상호간에 필수적으로 분담 구독하는 저널이 있다. 이러한 저널은 본교의 이용률이 적거나 요구가 사라졌다고 해도 분담 수서 기관들과의 협약에 따라 구독을 유지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3.2.3 구독중지

이제 전자저널 패키지를 구독 중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으며, 구독중지의 경우 구독선정 보다 훨씬 명확한 타당성이 확보되어야만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자들이 이미 어떤 저널이 구독중인지를 확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자저널은 인쇄저널보다 구독중지가 훨씬 어렵다. 또한 특정 저널 하나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 단위로 중지를 하게 되므로 구독중지에 대한 판단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 이용통계가 적은 데이터베이스로서 구독중지의 근거가 명확한 전자저널만 중지조치를 하고 있었다.

“1년 구독하고 통계가 안 나오니까 구독을 중지한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한번 있었는데 그 이외에는 전자저널의 경우 한번 구독하면 계속 구독하게 되구요.”

(중소규모 대학)

3.3 전자저널 이용

3.3.1 전자저널 선호 경향

도서관의 이용자들은 인쇄저널보다 전자저널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대학에서는 이용자 요구분석을 통하여 저널이용의 경향을 파악하곤 하는데, 이공계 이용자는 물론이려니와 사회과학 계열 이용자들도 전자저널의 편리성과 즉시 이용 가능성, 입수의 신속성을 들어 선호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주제별로 이용행태가 다르다. 경영관련 연구소에서는 아직도 인쇄저널에 대한 요구가 있고 아카이빙을 해서 과거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쇄저널 수요가 있고, 전자통신 등 이공계 연구소, 의학도서관 등에서는 인쇄저널 구독을 하지 않고 거의 전자저널로 가는 추세라고 하였다.

“...저희는 인쇄본을 다 버렸어요... 소위 SCI 저널이라고 해도 ... 이론적인 저널은 필요 없다는 거죠. ... 현재 거의 100%가 전자저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소)

3.3.2 이용통계

인쇄저널의 경우 그 이용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연속 발행되는 전자저널의 특성만 고려하여 구독을 유지해 왔었는데, 전자저널은 이용률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므로 비용 대 효과 분석이 가능해 졌다. 이러한 이용통계는 도서관의 전자저널 패키지의 구독유지와 종단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곤 한다. 특히 연구소도서관은 CPA(cost per article), 즉 논문 편당 가격을 계산하여 이용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저널의 이용통계라고 해서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니다. 검색 건수나 원문 클릭 수, 다운로드 건수가 정확하게 그 논문의 원문 이용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전자저널이 표준화된 통계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주요 컨소시엄은 COUNTER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통계 산출 방법은 ①전자자원관리시스템(E-Resource Management System, 이하 ERMS)에서 확인하거나, ②담당 사서가 각 전자저널 또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마다 접속하여 통계를 수집하고 있고, ③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구독 출판사나 대행사에 의뢰하여 통계를 수집하곤 한다.

사서들은 이 통계에 대해 단순한 이용 수치 확인을 넘어 통계를 해석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일임을 지적하였다.

4. 분석결과(2) : 컨소시엄

4.1 컨소시엄의 효과

4.1.1 사서업무의 용이성

컨소시엄은 전자저널 담당 사서들의 업무를 쉽게 처리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다주었다. 각 기관 담당 사서가 일일이 많은 대행사와 접촉하지 않고도 전자저널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구독계약의 편리성, 국가 대표기관을 통하여 계약하는 것이므로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계약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는 계약과정의 투명성, 컨소시엄 주관기관에서 가격 협상을 대행하여 정해주고, 공동구매 방식으로 할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담당 사서 개인이 특별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가격 조건의 경제성 등이다.

4.1.2 양질의 전자저널 확보

우리나라 전자저널 컨소시엄의 형성과 확대는 국내의 학술커뮤니케이션 시장을 활발히 하고 세계화 하는 데에도 큰 공헌을 하였다. 컨소시엄이 시작된 2000년 이후 한국에서는 양질의 학술정보를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구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외 전자저널을 다량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 결과물도 ... 우리나라가 SCI 13위 인가 12위죠. 10년전 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공급자)

또한 컨소시엄이 형성되기 전에는 지역이나 관종의 규모에 따라 전자저널의 정보 격차가 매우 심했으나 많은 도서관들이 컨소시엄에 가입하면서 상향평준화를 이루게 되었다.

4.1.3 이용자의 편의성

컨소시엄이 활성화되면서 도서관의 이용자들은 많은 저널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도서관의 컨소시엄 가입이 학술 정보 보급의 확대 노력에 따른 혜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종수의 이용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도서관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용자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다고 생각해요... 도서관에 비해 이용자들은 많이 편리해졌죠...”

(컨소시엄 주관기관)

또한 이용자들은 컨소시엄 구독을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모든 것을 도서관에서 책임을 지기를 원한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기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용자들이 잘 몰라요... 이게 컨소시엄으로 구입했는지, 어떻게 해서 쓰고 있는지 그냥..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전자저널을 이용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고 누가 컨소시엄을 해주고 누가 어떤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달레마죠.”

(컨소시엄 주관기관)

이와 같이 컨소시엄은 이용자들에게 큰 혜

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부터 혜택이 왔는지를 알지 못하므로 도서관이나 컨소시엄의 지지자, 후원자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사서들은 컨소시엄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홍보하고 조직의 경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저널 컨소시엄의 힘이 보다 막강해지고 조직력이 강화되어 향후 국내 학술정보 유통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4.2 컨소시엄의 문제점

4.2.1 가격문제

1) 선진국형 가격조건

각 도서관은 컨소시엄에 제시되는 가격의 근거 제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가격의 인상 폭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매년 가격이 인상되지만 도서관 예산은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그렇게 인상되는 가격이 어떤 근거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제시해주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가격정책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공급자 측에서는 사서들의 접근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가격만 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 없는 대책이라는 것이다.

“고객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가격을 내려 달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나중에 보이코트 해보자 이런 식으로 3단계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런... 그것은 모두 서로에게 도움이 안돼요.”

(공급자)

그러나 참여기관들은 한국에서의 전자저널 컨소시엄이 선진국의 컨소시엄과는 달라야 하지 않느냐는 강한 반발을 나타내었다. 특히 초기에 매우 저렴하게 제공해주어서 편리하게 사용하다가 갑자기 비용을 올려 전 세계 기준에 맞추겠다고 하는 업체들에 대해 항의하였다.

“출판사들이...다들 우리나라가 너무 싸게 들어왔다고 얘기하지만,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쓰다가 갑자기 몇 배를 올리면 참 난감하잖아요...”

(의학/병원도서관)

한편, 컨소시엄 주관기관 측에서는 한국에서만 저렴하게 구독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상대 협상 측에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 강국에서 왜 할인을 요구하느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설명하였다.

“저도 협상할 때 second language 얘기 많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다 그렇게(영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석사, 박사가 되더라도 정말 그 나라에서 성장하지 않았으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 수요나 그런 것 자체에 문제가 있죠...가격을 내려라. 그러면 출판사쪽에서 하는 말은 한국은 OECD 국가 아니냐, 경제대국이다.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전 세계 10위 랭킹이고 한국보다 못한 유럽의 나라들도 global standard에서 가격을 받고 있다. 이러면 참 그 다음에 뭐로 더 얘기

를 해서 가격을 내려야 되나. 그게 참 애매해 지더라고요.”

(컨소시엄 주관기관)

공급자들은 한국적 상황에 맞는 가격 조건이 글로벌 시장에서 객관적인 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가격에 대한 문제를 출판사/대행사와의 해결하여 가격을 낮추려고만 하지 말고, 소속기관에서 예산을 추가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유하였다.

“저희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 결국 혜택 보는 건 이용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도서관에만 책임을 묻느냐는 거죠. 대학의 운영자에게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으니... 소위 말해서 얘기하기 편하니까 도서관 가서 그냥 얘기하는 거죠.”

(컨소시엄 주관기관)

이들의 의견과 같이 도서관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무조건 출판사/대행사와의 논쟁으로 가격을 할인받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이에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주는 혜택을 근거로 하여 상부기관에 예산을 요청하고 확보하는 시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쇄저널 기준의 가격조건

구독중인 인쇄저널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문제시되었다. 예산에 따라 인쇄본을 추가 또는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컨소시엄 이전에 구독했던 인쇄저널 가격을 기본으로 컨소시엄 구독비용을 책정하여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모순이다. 이는 결국 예산이 감소되

면 컨소시엄을 탈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쇄본 필수 구독 조건은 아카이방을 목적으로 구독하는 기관 이외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조건이었다. 동일한 저널에 대한 중복 지출이 심해지므로 신규 구독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3) FTE 기준의 가격조건

가격조건 중에는 FTE 기준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컨소시엄에서 구독하는 해외 전자저널은 최소한 대학원 이상에서 주로 이용되므로 영어권의 FTE와 다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DB는 학부생보다 대학원생 이상이 이용을 하는데 FTE에 학부생까지 다 포함되는 한국적 상황에 안 맞는 것 같구요. 학부생들은 언어적인 면에서 일단 제외되거든요. 아무리 교수들이 DB 이용을 독려한다고 하더라도 본 인들은 번역한 것을 찾는데...”

(대규모 대학)

FTE 기준에 대해서는 참여기관에 따라 서로 입장이 다르기도 하였다. 규모가 큰 대학도서관에서 FTE 기준이 높아 가격이 높아진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반면,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 수는 많아도 이용률은 적은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일정하게 FTE로만 가격을 매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건이라고 지적하였다. 동일한 FTE의 경우에도 이용통계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수년 동안 같은 비용으로 가격

을 지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현재 설정된 FTE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FTE 단위는 대학 기준으로 잡은 것으로 보이며 소규모 도서관을 위하여 조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FTE를 학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한 규모가 5천명 이하, 6천명 이하 아니면 천명 이하 그다음에 몇 만 명 이렇게 단위가 넘어 가는데 저희는 80명이어서 소규모에서도 굉장히 작은 쪽에 속하거든요. FTE를 좀 더 세분화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용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든지...”

(연구소)

또한 주제별 전자저널은 주제별로 FTE를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약학 전자저널의 경우 약학 대학 관련 교수, 학생 이외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주제별 또는 학과별 FTE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일부 데이터베이스가 학과별 FTE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접속이용할 수 있는 IP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4) 이용통계 기준 가격조건

한국의 실정에 맞는 가격조건을 언급과 더불어, 해당 저널의 국내 이용통계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선진국의 이용통계와 한국의 이용통계가 서로 다를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격조건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다.

“... 항상 FTE 규모 가지고만 얘기를 하지 한 번도 통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못 봤거든요... 상위 5개 대학 10개 대학 같은 경우는 많이 보죠. 그렇지만 그 이외는 급격하게 이용통계가 떨어져요. 그렇다면 그걸 감안해서... 좀 더 세분화된 그룹으로 해주면 안 될까요.”

(중소규모 대학)

그러나 출판사 측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통계기준으로 가격을 매기면 판중에 따라 더욱 불리할 수도 있다는 조언을 하였다.

“... 내년부터 아마 이슈화가 될 것 같은데요... value-based pricing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를 4가지 항목으로 나누는데 전년도에 봤던 다운로드 건수, 그 저널에 들어가 있는 총 아티클 수, 이것이 얼마나 citation 됐는가, 그리고 impact factor, 또 하나가 추가해서 그 나라의 국가순위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하위레벨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100%라고 하면 20%이상 상위순위는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이용량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두 번째 약 30%에서 40% 보는 기관들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컨소시엄 가격 마지막에 있는 30-40% 기관들은 가격이 많이 내려갑니다...”

(공급자)

결국 이용통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고 해도 출판사 측에서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전자저널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모든 판중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가격모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4.2.2 구독모형

전자저널 담당 사서들은 현재의 가격 모형

이 주제가 다양하고 규모가 큰 종합대학 중심으로 맞춰져 있고 다양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제별 구독모형이나 저널 선택형 구독모형 등의 제공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가격 모형을 하더라도 출판사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Science Direct의 경우 작년 12월에 얘기할 때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모든 패키지를 구입하지 말고, 자연과학이면 자연과학, 의학 이렇게 하라, 그것도 우리는 뵈차다. 그것도 모두 구독할 수 없으니까 의학에서 3종, 공학에서 몇 종 이렇게 해서라도 가격모델 구독모델을 제시할 수 있느냐 약속을 해달라 그러면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확실히 확답을 못해 주시더라고요.”

(소규모 대학)

이러한 회의적인 시각은 출판사/대행사 측도 마찬가지였다. 앞에서 설명했던 가치 기반 가격책정(value-base pricing)이라는 모형이 우리나라에도 유용할지는 미지수로서 국가의 지원 없이 추진되기는 어려운 모형이라는 의견이었다.

전문 분야에 맞는 구독 모형이 부족하다는 것은 소규모 대학도서관, 특정 주제의 연구소 도서관 그리고 의학도서관에서 모두 문제로 제기하였다.

4.2.3 라이선스

협상에 익숙하지 않은 도서관 사서들로서는 라이선스 부분에서 출판사/대행사뿐만 아니라

컨소시엄 주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계약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도서관들이 불안해하는 사항이었다.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참여기관을 대표해서 출판사/대행사와 계약을 맺은 경우 또는 참여기관이 본사가 아닌 한국 지사와 계약을 맺은 경우 등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위반 사태에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가 문제로 남아 있다.

출판사/대행사는 라이선스가 ‘국제 기준에 준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한국의 구매 절차를 무시한다. 그러나 기관에 따라 이러한 구매 절차와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 사서는 구매 담당자를 설득하고 별도의 추가 서류들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된다. 최소한 우리나라 공공 기관의 구매 절차에 맞는 서류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라이선스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점도 문제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라이선스가 계약 전에 미리 제공되지 않아 검토도 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FGI 참여기관들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1년 내내 라이선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4.2.4 계약 중 변경 문제

계약 중에 저널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계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다. 계약 기간 동안에는 변경이 없도록 하고, 변경 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대처할 기간을

여유 있게 주도록 하여야한다.

“중간에 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B, C 이 저널을 보고 계약을 했는데 A, B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빠진 것들이 있었어요.”

(대규모 대학)

“Science Direct에서 옛날에 학회지 저널들이 무료로 제공되었던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무료로 안 하겠다 그러면서 그것만 모두 빼졌어요, 이것을 보려면 돈을 더 내라는 거예요, 조건이 더 나빠진 거예요”

(중소규모 대학)

중도의 계약 변경으로 인한 피해는 출판사/대행사도 마찬가지였다. 도서관이 계약 기간 중에 구독 취소를 하거나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도서관 역시 계약 기간 도중 계약을 해지하거나 구독료를 미지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주관기관에 따라서 기관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구독기간이나 구독료는 언제까지 지급한다 그리고 구독은 3년 개런티라면 3년 해야 되는데 구독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거나 아니면 3년 기간인데 중도에서 해지하는 부분에 대해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자)

이러한 쌍방 간에 계약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KESLI는 이를 감독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제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3 컨소시엄 개선 요구사항

4.3.1 가격조건의 현실화

컨소시엄의 조건에서 담당 사서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문제점은 가격 근거의 의문이었다. 이에 대해 출판사가 원가 공개 또는 참여기관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합리적인 가격 조건을 만들기를 희망하였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의 도서관 예산과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이용통계를 참고로 한 가격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인쇄저널 기준 가격조건은 모순이 많다. 인쇄저널의 과거 구독 분을 가지고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매년 엄청난 가격을 담보로 하여 컨소시엄에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FTE와 미국의 FTE는 그 의미가 크게 다르므로 이 조건을 반드시 조정해야 할 것이다.

4.3.2 가격 및 구독모형의 다양화

1) 국가 라이선스

참여기관들은 국가 라이선스에 대한 요청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였다. KERIS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 관중에 필요한 학술 전자저널을 도입한다면 각 기관의 예산을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는 쪽으로 전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라이선스를 도입함으로써 KESLI가 홍보될 수 있고 연구자들에게 컨소시엄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2) 주제별 구독모형

주제별 구독모형은 대규모 대학도서관에서부터 전문대학, 의학, 연구소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환영하고 있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주제별로 구독 요청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나누어주면 필요한 저널에 대한 선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전부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전자저널이 특히 작은 규모의 주제별 도서관에게 매우 불합리하였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풀 패키지 구독과 주제별 구독은 참여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제별 구독과 풀 패키지 구독의 가격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Science Direct 경우는 full collection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용도는 별로 없지만 (주제별 구입과)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서, ... 2~3개 정도(주제) 연결되면 그 가격이 그 가격이지 않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full collection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3) 저널 선택형 구독모형

기관의 규모에 상관없이 특정 저널 몇 가지만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도 풀 패키지의 전자저널을 구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널 선택형 구독모형을 제안하였다.

“작은 전문도서관들은 해당 기관에서 보고

싶은 10종, 5종 이것만 구독하더라도 컨소시엄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말씀이죠? 그건 좋을 것 같아요. 조건검토위원회 하실 때 그것을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도서관들이 많잖아요.”

(연구소)

그러나 이에 대해 반대의견도 있었다. 즉, 사서가 개별 타일을별로 했을 때, 각 저널별 요구분석, 선정근거, 처리과정 등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 한국형 구독모형

수년 동안 컨소시엄 업무를 맡아 진행해온 경험을 가진 사서들은 한국형 구독 모델을 개발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8년 이상의 컨소시엄 수행을 통해 각 데이터베이스 회사에서는 국내 기관에서 사용한 저널 이용통계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통계에 기초하여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저널을 중심으로 패키지를 구성하거나 구독 모델을 개발해 본다면 한국의 대표 컨소시엄의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하였다.

5) 종량제

저널을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종량제에 대한 의견도 다수 제안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종량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서들은 예산 설정의 어려움을 들어 종량제의 불합리함을 설명하였다. 대행사 측에서는 건당구매(payment per view)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비용이 매우 고가여서 도

서관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6) 구매전환형 건당구매

구매전환형 건당구매란 출판사 저널을 구독 하되, 일시적으로 필요한 저널에 수록된 기사는 다운로드 건당으로 지불하다가 건당 구매가 일정량 이상을 넘어서는 저널은 구독으로 전환하는 모형이다. 참여자들은 종량제보다 구매전환형 건당구매가 더욱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새로 구독하는 전자저널의 경우 구매전환형 건당구매를 사용하면 매우 합리적일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모형을 다양하게 제시해 놓기만 하고 선택은 한 가지로 고정되면 다양한 모형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하나의 패키지 안에서 기관에 맞는 가격 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한 모형을 원하고 있다.

4.3.3 표준 라이선스

우리나라 컨소시엄의 라이선스는 한글화된 표준 양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담당 사서들은 KESLI의 책임 하에 표준 양식 작성이 작성되기를 희망하였다.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구매 절차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에는 프록시 허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도서관은 대행사에 지불하는 서비스 비용에 대한 의무 이행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

을 경우 책임을 묻는다. 이것은 주로 전자저널 구독에서 발생하는 리스트 제공, 공지사항 제공 등의 부가 서비스와 관련된다.

4.3.4 그룹별 요구사항의 특징

FGI를 통해 수집한 각 그룹별 요구사항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규모 대학도서관에서는 인쇄저널을 필수적으로 구독해야하는 구독조건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가장 크게 제시하였다. 아카이빙에 대한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으므로 주요 저널에 대한 아카이빙이 명확하게 마련되기 전에는 인쇄저널을 구독중지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적 아카이빙을 해결해줄기를 희망하였으며, 그것이 어려울 경우 각 기관의 분담 아카이빙을 시도할 것을 건의하였다.

중소규모 대학도서관에서는 전자저널의 구독비용 대 이용 효과가 적은 것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중소규모 대학도서관에서는 대규모 대학에 비하여 이용량이 현저하게 적은 데에 비해 FTE로 가격산정을 할 경우 매우 불합리한 조건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전자저널의 풀 패키지 구독이 아닌 주제별로 세분화된 패키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연구소와 의학/병원 도서관의 경우 매우 작은 규모이면서 특정 주제의 전문도서관이다. 따라서 이들은 종합대학 위주의 전 주제 분야 전자저널 구독 모형이 아닌 주제별로 세분화

된 구독 모형을 희망하였다. 이들은 전자저널 만(e-only) 구독하는 형태로 가볍게 전환할 수 있는 구조인 반면에 전자저널의 단위가 너무 방대하여 비용 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다.

반면, 컨소시엄 운영기관의 요구사항은 각 기관이 예산확충 노력중대에 주력해주시기를 희망하였고, 사서들이 구독조건 검토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였으며, 운영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상호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컨소시엄 참여기관 5개 그룹 간의 상호 공통점은 FTE의 현실화, 인쇄 필수 구독 조항 문제, 구독 모형의 다양화 필요, 국가 라이선스 DB 제공, 계약 중 저널 제공중단 불만, 국가 차원의 아카이빙, 컨소시엄 간 중복 사업 배제, 사서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커뮤니티 운영 등이었다.

5. 분석결과(3) : KESLI

5.1 KESLI의 역할

국가 전자저널 컨소시엄을 위해 탄생한 KESLI는 도서관 전자저널의 수서 정책에 새로운 지평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공로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모든 전자저널 당

당 사서들이 동의한 내용이었다. 사서들은 KESLI가 ① 컨소시엄의 중재 및 협상 역할, ② 컨소시엄 참여기관들의 관리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조직의 변화와 인원 감소 등의 이유로 KESLI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컨소시엄의 규모가 확대되고 여러 가지 출판사의 정책이 변화되면서 KESLI는 담당 사서들에게 협상 능력이 부족하고, 일방적으로 출판사의 정책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인상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사서들은 여전히 KESLI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 KESLI가 국가 레포지토리(National Repository)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5.2 KESLI의 문제점

5.2.1 협상력 부족

각 기관에서 제기한 KESLI의 문제점은 협상력의 부족에 관한 것이었다. 초기의 KESLI가 도서관측의 이익을 대변했던 것에 반해, 최근 업체의 입장을 도서관에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담당자들은 KESLI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다고 말하였다. 심지어 라이선스 조건이 도서관측에 불리한 상황에 놓였을 때도 KESLI의 미온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사서들이 별도의 대응조직을 마련한 경우도 있었다¹⁾고

1) 특정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구독비용을 급격하게 올려 국립대학을 비롯한 일부대학이 대책협의회를 만든 사례가 있다.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KESLI의 인력이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협상력이 없어요. 인원 자체가... 106개 출판사 조건을 두 사람이 8월 한 달 동안에 협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집중적인 협상도 안 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매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소)

한편, 컨소시엄 주관기관에서는 현장사서들의 적극적 참여가 미흡한 점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컨소시엄은 컨소시엄 조건이 제시된 후에 기관들이 참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애초에는 컨소시엄을 만들고 나서 컨소시엄을 했잖아요... 참여하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조건에 대해서 의무를 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바꾸자고 하고, ... 컨소시엄은 공동의 집합체고 공동의 우리 일이란 말이죠.”

(컨소시엄 주관기관)

즉, 컨소시엄은 그룹을 모아 주는 일을 하는 것이며,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그룹에서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서로 똥치고 힘을 합하여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협상에 임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한다는 것이다.

5.2.2 조건검토 소위원회

컨소시엄 주관기관에서는 조건검토에 대한 인력부족 및 현장사서 의견 수렴을 위한 방안으로 ‘조건검토 소위원회’등 각 기관 전자저널 담당 사서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사서들은 조건검토 소위원회가 출판업체에서 주는 계약조건 이상의 것을 얻어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이에 대해 조건검토 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서들은 현장사서가 출판사와 협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외국의 경우는 사서들이 아니라 협상팀에 변호사도 있고, 그 방면으로 대행사 업무도 많이 했었고, 그렇지만 (우리 나라는) 학교 사서를 대변할 수 있는 ... 그런 자문기관이 공개적으로 그렇게(협상을) 해야지 우리 솔직히 협상이라는 걸 생전 해봤어야지...”

(대규모 대학)

또한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의견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데에 시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부담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 사서들의 응답조차 성의 있는 답변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한마디 하고 싶어요.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연구소 대학도서관... 회수율이 너무 저조했어요. 거기 설문지 조사 보면 컨소시엄 가격이 전체 리스트 가격의 90%인 경우 이 조건에 만족하십니까? 불만족이요, 그 밑에다가 그럼 몇%가 좋겠습니까? 답 없음...그것

2) KERIS에서는 국가라이선스 데이터베이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을 해줘야 근거자료가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할인가가 현재 25%입니다. 만족하십니까? 불만족. 얼마면 되겠습니까? 답 없음.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대규모 대학)

이에 대하여 조건검토를 협상에 서투른 소위원회에 전임하기보다 KESLI 자체에서 확고하게 주관을 가지고 이끌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건검토를 소위원회에 전임시키기보다 KESLI 자체에서 확고한 규제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global standard에 맞출 수 밖에 없어요.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건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KESLI가 기본적인 방패막이를 해줘야 한다고 봐요. 시장 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연구소)

이해관계자 그룹 모두 적극적으로 컨소시엄에 임해야 한다. 현재 컨소시엄에 운영위원회와 조건검토 소위원회가 있지만 실제 역량은 크지 않다. 따라서 관종별 또는 주제별 단위의 소위원회의 필요성도 강조되어야 한다.

5.2.3 국가 아카이빙

FGI에 참석한 사서 모두 아카이빙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 주기를 희망하였고 그 방법으로 NDAC(National Digital Archiving Center : 이하 NDAC)³⁾을 추천하였다. KESLI

는 NDAC 사업에 대해 컨소시엄 참여기관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규모가 큰 대학도서관에서는 아카이빙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전자저널만(e-only) 구독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중소규모 대학 및, 연구소, 의학도서관에서는 아카이빙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규모 대학과 같이 개별적 아카이빙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KESLI에서 추진하는 아카이빙 사업인 NDAC에는 관심이 많았다.

“KESLI 차원에서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무엇인가 해결책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 (KESLI에서) NDAC를 잘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 보시든지, 하여튼 방안이 마련되기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연구소)

아카이빙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NDAC이 현재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으며, 얼마나 추진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과, 이것이 현재 담보 상태라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규모 대학에서는 NDAC 사업이 어렵다면 기관 간에 전자저널을 분담 구독하여 아카이빙하는

3) KESLI가 추진 중인 해외 전자저널 아카이빙 사업을 지칭한다. 국내 자금으로 구독하는 해외 전자저널을 장기보존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출판사와의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Science Direct 등 많은 전자저널 콘텐츠를 이미 확보해 놓았지만 아직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본격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다.

“어차피 구독을 유지하니까, ...A대는 이 저널, B대는 이 저널, C대는 이 저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5개 대 몇 개 대 이렇게는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분담을 해서 아카이빙할 수 있게라도 했으면...”

(대규모 대학)

5.2.4 KERIS와의 영역구분

현장 사서들의 불만 중 하나는 KERIS와 KESLI의 컨소시엄 영역이 불분명하여 업무상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KERIS, 전자저널은 KESLI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어 자료 형태에 따라 어떤 컨소시엄에 참가해야할지가 분명하였는데, 최근 2-3년 동안에 KESLI의 컨소시엄이 전자책이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섭렵하게 됨으로써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KERIS하면 그야말로 데이터베이스라고 분명했고, KESLI하면 전자저널이 있었어요. 그게 분명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모호해졌어요. 전자저널 안정되니 ebook으로... 국가지원이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중소규모 대학)

KESLI나 KERIS 모두 국가기관인데 비슷한 종류의 컨소시엄을 수행함으로써 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5.2.5 커뮤니케이션 창구 부족

지난 4월 KESLI 포럼에서도 지적되었고 이번 요구분석에서도 거론된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은 참여기관이 상호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것이었다. 담당 사서들 입장에서 KESLI의 홈페이지를 보면 사용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얻을 수 있는 정보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서 더욱 KESLI와 유리될 수밖에 없고, 소외된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5.2.6 KESLI 총회

각 관종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총회의 부실한 내용이었다. 총회가 마치 업체들의 홍보 시장처럼 컨소시엄 조건에 대해 진지한 논의나 담당 사서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없고, 컨소시엄 상품 설명회로만 내용이 구성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로 느끼고 있었다. 특히 대학도서관은 로테이션으로 업무를 맡게 되기 때문에 전자저널 업무를 처음 맡는 경우 인수인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컨소시엄 조건의 복잡성 때문에 전자저널 담당 초보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기를 원했다.

5.3 NDSL

NDSL에 대한 전자저널 담당자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NDSL은 저널을 관리하는 매우 편리하고 유용한 시스템이다. 국내에 소장된 인쇄저널 및 전자저널을 통합적으로 검색

하여 소장처를 확인할 수 있고 자관의 저널에 대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문헌복사서비스까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일부 기관은 자관의 도서관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서지 검색 및 문헌복사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자관 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는 저널 제목만 검색이 되고 논문명으로는 검색이 되지 않아서 불편하지만, NDSL에서는 논문 제목까지 검색이 가능하므로 그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었다.

NDSL은 FGI 그룹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대학도서관은 규모에 관계 없이 사서와 이용자 모두 서지 검색과 문헌복사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편이지만, 연구소나 의학도서관은 주로 사서의 서지 검색용으로만 활용되고 있었다. 이들 도서관에서 NDSL을 잘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주제 분야의 우수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NDSL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은 첫째,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이었다. 가끔 부정확한 데이터가 있어 사서와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참여기관들이 데이터를 잘못 제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류를 방지하려면 회원 기관들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독려해야 한다.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기관들에게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정보원이 취약하여 서지 데이터베이스로는 한계가 있고, 셋째, 검색의 사용성 측면에서 전자저널 약어 검색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했다.

전자저널 담당 사서들이 NDSL과 관련하여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YesKISTI와 KISTI의 문헌복사서비스 기능을 NDSL에 통합
- 국내 학술 정보 통합 제공
- Web of Science와 같은 인용 정보 제공
- PUBMED와 같은 경쟁 데이터베이스 벤치마킹
- Open Access 저널 관리 기능을 제공
- 인터넷 검색 엔진과 연계
(예 : 구글 스칼라)
- 기여도가 높은 회원에게 혜택을 제공

5.4 KESLI 개선 요구사항

5.4.1 KESLI의 조직 기반 확충

1) 위상 강화

KESLI의 컨소시엄 운영에 대한 가장 큰 요구사항은 KESLI가 전자저널 구독 협상의 국가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달라는 것이었다. 전자저널은 예전부터 그 구독의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료인데, 그러한 전자저널 구독의 국가 대표기관이 일관된 조직과 인력과 예산으로 변함없는 추진력을 발휘하여야 각 참여기관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KESLI의 소속기관이 KAIST에서 KISTI로 이관된 것을 보면서 혹시 조직의 존속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에 근간을 두고 있다.

KESLI가 KISTI로 이관된 이후 조직이 축소되면서 회원 기관들이 KESLI의 약화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오히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의 조직으로 있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장점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지금 우려하는 건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이 KESLI라는 게 중국적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것... 그 부분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KESLI라는 거는 national, 많은 기관의 공동의 모임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결국은 국가적으로도 좋고, 기관에도 이득이 되고...”

(연구소)

2) 인력 확보

현재 KESLI의 인력은 방대한 컨소시엄 사업을 원활히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된다. 현재 사서들은 KESLI가 현재보다 더 강화된 위상을 갖고 학술 정보 유통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바라지만 현재의 규모로서는 역부족이다. 백여개의 컨소시엄과 수백개의 컨소시엄 참가기관을 관리하고 서비스하고 협상력을 다지기 위해서 인력의 확보는 선결조건이다. 따라서 인적 자원을 더 충원하고 조직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3) 장기 계획 및 비전 제시

FGI 참여자들은 KESLI가 안정적으로 유지

되고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으면 하는 데에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속적으로 컨소시엄 업무를 추진해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현재 KESLI는 전자저널 컨소시엄을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여 서비스하고 있지만 이는 학술정보 입수 업무 개선을 위한 활동에 한정되어있다. 국가적 학술정보 유통과 관련하여 미래지향적 사업을 계획하기 위하여 국내 유입 학술정보 통계분석, 이용통계 분석, 이용행태 분석 등 학술정보 유통의 선도를 위한 향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5.4.2 전자저널 공급자 평가와 모니터링

참여기관들은 KESLI가 컨소시엄에서 중재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담당 사서들이 KESLI에 기대하는 것은 중재 및 협상 역할이다. 양적으로 확대된 컨소시엄 보다 선정된 컨소시엄에 집중하기를 기대하였다. 즉, KESLI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출판사/대행사를 평가하고, 신규로 참가하는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하도록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라이선스의 한글 표준양식을 개발하여 일선 사서들이 보다 쉽고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5.4.3 국가 아카이빙 구축

대규모 대학은 국가 아카이빙 사업을 신뢰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인쇄저널 구독을 중지할 의사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저널을 구독할 수 있고 매우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도 대학이나 연구소, 의학/병원 그룹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 아카이빙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KESLI에서 준비 중인 NDAC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아카이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 아카이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인쇄저널 분담구독 형식의 아카이빙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 학술지 지원센터 사업과 협력하여 국가 아카이빙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4.4 통계시스템 제공

각 기관에서는 사이트마다 직접 들어가서 이용통계를 확인하거나 출판사/대행사를 통하여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업은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 작업이다. KESLI에서 통계 시스템을 제공한다면 보다 원활하게 활용하고 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통계는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5.4.5 컨소시엄간 중복 사업 지양

사서들은 KESLI와 KERIS의 중복 사업을 지양하였다. 차별화 되지 않은 컨소시엄은 전자저널 담당 사서에게 매우 혼란을 주었다. 담당 사서들은 KESLI 초기에 운영된 바와 같이 타 컨소시엄과의 사업내용을 구분하는 것을

요청하였다. 이들은 컨소시엄 운영주체의 상이함에 따라 신청, 처리, 활용의 절차가 모두 달라지므로 업무가 부과되고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낀다고 하였다.

5.4.6 KESLI 총회 운영의 개선

사서들은 컨소시엄 총회의 운영이 개선되기를 희망하였다. 대행사의 제품 홍보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총회의 형식과 내용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사서들은 컨소시엄 조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논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청하였다. 또한 관중과 주제를 안배하여 총회시간을 편성하여 최대한 상충되지 않도록하기를 원하였다. 총회의 각 세션의 시간 편성을 관중별 또는 주제별로 구분배정하여 원하는 세션을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5.4.7 사서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저널 담당사서들은 사서재교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였다. 신입 전자저널 담당사서를 위한 업무교육 프로그램, 전자저널 업무에 숙련된 사서를 위한 중급 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이 수준별로 나눈 교육 프로그램을 요청하였다. 내용으로는 전자저널 실무, 협상에 관한 내용, 통계관련 등을 제안하였다.

5.4.8 커뮤니케이션 창구 마련

전자저널 담당자들은 KESLI 참여기관 간의 커뮤니티 또는 콜센터 운영을 요청하였다.

이를 통하여 질의응답이나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소식, 홍보 등을 KESLI 사이트로 창구를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사서나 출판사/대행사 모두에게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일을 피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단축되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참여기관들은 관중을 불문하고 KESLI에 대해 소외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건의를 하려고 해도 연료가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KESLI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를 잘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마련하여 참여기관 간의 협력과 관계 형성을 도모해야한다는 의견이었다.

6. 결론

수년간의 전자저널 국가 컨소시엄을 통하여 국내 연구자들은 다양한 학술정보를 손쉽게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성의 이면에는 각 도서관에서 부담해야 할 문제점과 고충이 내재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적집단면담 방법을 통해 KESLI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국내 각 도서관들의 저널 구독현황을 살펴보면 이들은 컨소시엄을 통해 저널을 수집하며, 전자저널을 선호하고 있다. 저널선정을 위해서는 이용자 요구조사 또는 이용통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서들의 선정권은 점차 줄어

드는 추세이다. 사서들은 컨소시엄을 통하여 양질의 저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을 뿐 예산 압박 등 사서의 고충은 더욱 심해졌다. 특히 국내 전자저널 가격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사서들의 불만이 크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사서들은 다양한 가격모형과 구독모형이 제시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주관기관이나 대행사, 출판사등과의 상호 협력과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KESLI에 대한 사서들의 기대감은 매우 컸다. 국내 전자저널 컨소시엄으로는 KESLI가 가장 방대하며 시스템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KESLI의 역할과 위상이 매우 약화되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서들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KESLI가 좀 더 위상을 강화시키고 인력을 확보하여 협상력을 높일 것을 희망하였다. 또한 국가 아카이빙의 책임을 맡아 운영할 것과, 사서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총회 운영개선, 커뮤니케이션 창구 마련 등 사서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매우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컨소시엄 운영기관은 사서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서들도 뜻을 함께 하였다. 한편 콘텐츠 제공자들은 글로벌 기준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컨소시엄 참여 도서관, 컨소시엄 운영자, 그리고 콘텐츠 제공자는 KESLI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대표적 이해관계자 집단이다. FGI에

서 나타난 각 집단 간의 의견과 입장은 이해관계자 집단 모두 컨소시엄의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 이외에는 집단 간의 기대와 요구가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도서관계에 새로운 구독 방법으로 소개된 컨소시엄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참여 도서관들에 의해 준비된 형태로 진행되었기보다는 컨소시엄 운영자나 콘텐츠 제공자에 의해 주도된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자 집단의 커뮤니케이션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컨소시엄에 대한 집단 간의 갈등도 증가하게 되었다. 전자저널 컨소시엄 운영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일방의 의견만 내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의견 조율과 이해, 협력 그리고 조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KESLI 컨소시엄의 이해관계자 집단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참여도서관들의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도서관의 내부적 노력으로는 도서관 마케팅이 중요하다. 전자저널 컨소시엄에 대한 사서의 노력이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이 소속 기관의 부가 가치 생산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행정가들이 알 수 있도록 설득하여 지속적인 예산 증가를 확보해야 한다. 도서관의 외부적 노력은 이러한 컨소시엄 활동에 도서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방적인 사고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생의 관계를 수립해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 도서관은 담당 사서들이 컨소시엄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업무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KESLI 컨소시엄 운영자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소수 인원이 담당하는 작은 규모의 조직으로서 거대해진 컨소시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운영 조직을 확대하여 협상력을 갖춘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조직의 위상이 강화되면 컨소시엄 협상을 위한 전문가의 협조와 해외 컨소시엄간의 협력 등과 같은 참여도서관들이 기대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추진이 용이해질 것이다. 컨소시엄 운영자는 참여도서관과 콘텐츠 제공자와의 견해와 입장을 소통할 수 있는 대화 창구의 역할을 하면서 컨소시엄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콘텐츠 제공자의 고객지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콘텐츠 제공자는 참여도서관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시장에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서 서로의 견해 차이를 좁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해외 출판사들에게는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알릴 책임이 있다. 해외 출판사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단순하게 경제력에 근거하여 막연하게 판단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한국도서관의 현황과 수요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지역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까지 KESLI 컨소시엄은 국내 학술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자원을 제공하

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앞으로 컨소시엄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완수함과 동시에 상호간의 협력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신은자, 2006, 학술지 가격모형이 대학도서관 수서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1: 21-36.
- 신은자, 2007, 학술지 박널판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373-389.
- 한혜영, 조현양, 2003, 해외학술 전자정보의 국가적 컨소시엄 정책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3): 97-120.
- 황옥경, 2004,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199-228.
- 日本醫學圖書館協會雜誌委員會, 2005, JMLA 電子 ジャーナル・コンソーシアム・アンケート 調査結果報告, 『醫學圖書館』, 52(3): 270-280.
- CRKN Evaluation Committee, Impact of the Canadian National Site Licensing Project: a report to partners and stakeholders, 2004, [cited 2007.4.10], <<http://researchknowledge.ca/en/programs/documents/ImpactFinalReportApr04.pdf>>.
- Rabiee, Fatemeh, 2004, "Focus-group interview and data analysis," Proceedings of the Nutrition Society, 63: 655-660.
- Satoh, Yoshinori, Hariki Nagata, Paivi Kytomaki, Srah Gerrad, 2005, "Evaluation of the university library service quality: analysis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Library Service Quality, 6(3): 183-193.